

- 11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모두 고백하며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복음 환호송

필리 2, 8-9 참조

-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네.
하느님은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네.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복 음

가 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기〉

○ 해설자 ✞ 예수님 ● 다른 한 사람 ● 다른 몇몇 사람 ◎ 군중

- 마태오가 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기입니다. 26, 14—27, 66
- 14 그때에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로 유다 이스카리옷이라는 자가
수석 사제들에게 가서 물었다.
- 15 ● “내가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넘겨주면 나에게 무엇을 주실 작정입니까?”
- 수석 사제들은 은돈 서른 닢을 내주었다.
- 16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님을 넘길 적당한 기회를 노렸다.
- 17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물었다.
- “스승님께서 잡수실 파스카 음식을 어디에 차리면 좋겠습니까?”
- 18 ○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 ✞ “도성 안으로 아무개를 찾아가,
‘선생님께서 ‘나의 때가 가까웠으니
내가 너의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파스카 축제를 지내겠다.’ 하십니다.’ 하여라.”
- 19 ○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파스카 음식을 차렸다.
- 20 저녁때가 되자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와 함께 식탁에 앉으셨다.

- 59 요셉은 시신을 받아 깨끗한 아마포로 감싼 다음,
 60 바위를 깎아 만든 자기의 새 무덤에 모시고 나서,
 무덤 입구에 큰 돌을 굴러 막아 놓고 갔다.
 61 거기 무덤 맞은쪽에는 마리아 막달레나와 다른 마리아가 앉아 있었다.
 62 이튿날 곧 준비일 다음 날에
 수석 사제들과 바리사이드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가서 ⁶³ 말하였다.
 ● “나리, 저 사기꾼이 살아 있을 때,
 ‘나는 사흘 만에 되살아날 것이다.’ 하고 말한 것을 저희는 기억합니다.
 64 그러니 셋째 날까지 무덤을 지키도록 명령하십시오.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 내고서는,
 ‘그분은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셨다.’ 하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기만이 처음 것보다 더 해로울 것입니다.”
 65 ○ 빌라도가 대답하였다.
 ● “당신들에게 경비병들이 있지 않소. 가서 재주껏 지키시오.”
 66 ○ 그들은 가서 그 돌을 봉인하고
 경비병들을 세워 무덤을 지키게 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또는 짧은 복음

- 마태오가 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기입니다. 27,11-54
 그때에 ¹¹ 예수님께서 총독 앞에 서셨다. 총독이 물었다.
 ● “당신이 유대인들의 임금이오?”
 ○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 “네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12 ○ 그러나 수석 사제들과 원로들이 당신을 고소하는 말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¹³ 그때에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다.
 ● “저들이 갖가지로 당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 들리지 않소?”
 14 ○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어떠한 고소의 말에도 대답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총독은 매우 이상하게 여겼다.
 15 축제 때마다 군중이 원하는 죄수 하나를 총독이 풀어 주는 관례가 있었다.
 16 마침 그때에 예수 바라빠라는 이름난 죄수가 있었다.

- 이는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47 그곳에서 있던 자들 가운데 몇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였다.
- “이자가 엘리야를 부르네.”
- 48 ○ 그러자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와
신 포도주에 듬뿍 적신 다음, 갈대에 꽂아 예수님께 마시게 하였다.
49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말하였다.
- “가만,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해 주나 봅시다.”
- 50 ○ 예수님께서서는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나서 숨을 거두셨다.
무릎을 꿇고 잠깐 묵상한다.
- 51 ○ 그러자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갈래로 찢어졌다.
땅이 흔들리고 바위들이 갈라졌다.
- 52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되살아났다.
53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다음,
그들은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에 들어가 많은 이들에게 나타났다.
- 54 백인대장과 또 그와 함께 예수님을 지키던 이들이
지진과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보고 몹시 두려워하며 말하였다.
- “참으로 이분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셨다.”
-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 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기〉

○ 해설자 ✚ 예수님 ● 다른 한 사람 ● 다른 몇몇 사람 ◎ 군중

- 마르코가 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기입니다. 14,1—15,47
- 1 파스카와 무교절 이틀 전이었다.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은
어떻게 하면 속임수를 써서 예수님을 붙잡아 죽일까 궁리하고 있었다.
- 2 그러면서 “백성이 소동을 일으킬지 모르니
축제 기간에는 안 된다.” 하고 말하였다.
- 3 예수님께서 베타니아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의 일이다.
마침 식탁에 앉아 계시는데,
어떤 여자가 값비싼 순 나르드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분을 어디에 모시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또는 짧은 복음

- 마르코가 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기입니다. 15.1-39
- 1 ○ 아침이 되자 수석 사제들은 곧바로 원로들과 율법 학자들,
 곧 온 최고 의회와 의논한 끝에,
 예수님을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겼다. ²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다.
- “당신이 유대인들의 임금이오?”
- 예수님께서서 대답하셨다.
- ✚ “네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 3 ○ 그러자 수석 사제들이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고소하였다.
- 4 빌라도가 다시 예수님께 물었다.
- “당신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소?
 보시오, 저들이 당신을 갖가지로 고소하고 있지 않소?”
- 5 ○ 예수님께서서는 더 이상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상하게 여겼다.
- 6 빌라도는 축제 때마다 사람들이 요구하는 죄수 하나를 풀어 주곤 하였다.
- 7 마침 바라빠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 때에 살인을 저지른 반란군들과 함께 감옥에 있었다.
- 8 그래서 군중은 올라가 자기들에게 해 오던 대로 해 달라고 요청하기 시작하였다.
- 9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다.
- “유대인들의 임금을 풀어 주기를 바라는 것이오?”
- 10 ○ 빌라도는 수석 사제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자기에게 넘겼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 11 그러나 수석 사제들은 군중을 부추겨 그분이 아니라
 바라빠를 풀어 달라고 청하게 하였다. ¹² 빌라도가 다시 군중에게 물었다.
- “그러면 여러분이 유대인들의 임금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은
 어떻게 하기를 바라는 것이오?”
- 13 ○ 그러자 군중은 거둑 소리 질렀다.
- ◎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 31 ○ 수석 사제들도 이런 식으로 율법 학자들과 함께 조롱하며 서로 말하였다.
- “다른 이들은 구원하였으면서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군.
- 32 우리가 보고 믿게, 이스라엘의 임금 메시아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지.”
-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그분께 비아냥거렸다.
- 33 낮 열두 시가 되자 어둠이 온 땅에 덮여 오후 세 시까지 계속되었다.
- 34 오후 세 시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다.
- ✚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타니?”
- 이는 번역하면,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라는 뜻이다.
- 35 곁에서 있던 자들 가운데 몇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였다.
- “저것 봐! 엘리야를 부르네.”
- 36 ○ 그러자 어떤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신 포도주에 적신 다음, 갈대에 꽂아 예수님께 마시라고 갖다 대며 말하였다.
- “자,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 주나 봅시다.”
- 37 ○ 예수님께서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다.
- 무릎을 꿇고 잠깐 묵상한다.
- 38 ○ 그때에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갈래로 찢어졌다.
- 39 그리고 예수님을 마주 보고 서 있던 백인대장이 그분께서 그렇게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 “참으로 이 사람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셨다.”
- 주님의 말씀입니다.

다 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기〉

○ 해설자 ✚ 예수님 ● 다른 한 사람 ● 다른 몇몇 사람 ◎ 군중

- 루카가 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기입니다. 22, 14—23, 56
- 14 시간이 되자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자리에 앉으셨다.
- 15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 ✚ “내가 고난을 겪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파스카 음식을 먹기를 간절히 바랐다.
- 16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파스카 축제가 하느님의 나라에서 다 이루어질 때까지

- 47 ○ 그 광경을 보고 있던 백인대장은 하느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 “정녕 이 사람은 의로운 분이셨다.”
- 48 ○ 구경하러 몰려들었던 군중도 모두 그 광경을 바라보고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
 49 예수님의 모든 친지와 갈릴래아에서부터 그분을 함께 따라온 여자들은
 멀찍이 서서 그 모든 일을 지켜보았다.
- 50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의회 의원이며 착하고 의로운 이였다.
 51 이 사람은 의회의 결정과 처사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유대인들의 고을 아리마태아 출신으로서
 하느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다.
- 52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 달라고 청하였다.
 53 그리고 시신을 내려 아마포로 감싼 다음, 바위를 깎아 만든 무덤에 모셨다.
 그것은 아직 아무도 묻힌 적이 없는 무덤이었다.
- 54 그날은 준비일이었는데 안식일이 시작될 무렵이었다.
 55 갈릴래아에서부터 예수님과 함께 온 여자들도 뒤따라가 무덤을 보고
 또 예수님의 시신을 어떻게 모시는지 지켜보고 나서,
 56 돌아가 향료와 향유를 준비하였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계명에 따라 쉬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또는 짧은 복음

- 루카가 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기입니다. 23,1-49
- 그때에 백성의 원로단, 곧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이¹ 일어나 예수님을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갔다.
- 2 그리고 예수님을 고소하기 시작하였다.
- “우리는 이자가 우리 민족을 선동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황제에게 세금을 내지 못하게 막고 자신을 메시아 곧 임금이라고 말합니다.”
- 3 ○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다.
 ● “당신이 유대인들의 임금이오?”
 ○ 예수님께서서 대답하셨다.
 ✚ “네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 4 ○ 빌라도가 수석 사제들과 군중에게 말하였다.
 ●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목도 찾지 못하겠소.”

- 16 그러므로 확신을 가지고 은총의 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자비를 얻고 은총을 받아 필요할 때에 도움이 되게 합시다.
- 5,7 예수님께서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
당신을 죽음에서 구하실 수 있는 분께
큰 소리로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고,
하느님께서서는 그 경외심 때문에 들어 주셨습니다.
- 8 예수님께서서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겪으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 9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는 당신께 순종하는 모든 이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복음 환호송

필리 2,8-9 참조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네.
하느님은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네.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복 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기〉

○ 해설자 ✚ 예수님 ● 다른 한 사람 ● 다른 몇몇 사람 ◎ 군중

- 요한이 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기입니다. 18,1—19,42
그때에 ¹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과 함께 키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셨다.
거기에 정원이 하나 있었는데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들어가셨다.
- 2 예수님께서서 제자들과 함께 여러 번 거기에 모이셨기 때문에,
그분을 팔아넘길 유다도 그곳을 알고 있었다.
- 3 그래서 유다는 군대와 함께, 수석 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그리로 갔다.
그들은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있었다.
- 4 예수님께서서는 당신께 닥쳐오는 모든 일을 아시고